

## 낮고 맑은 음성

황 금 찬(시인)

나는 아내가 높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어 본 일이 없다. 그와 30여년을 같이 살았지만 언쟁 한번 해본 일이 없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착하고 어진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꾸미는 가정에 평화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나는 46년 2월에 혼자 월남했고 아내는 혼자 남아 있다가 그해 5월에 38선을 넘었다. 월남 이후 우리는 이불 없이 2년을 살았으니 그 고생이 얼마나 컸을까. 하지만 아내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학교에 있었는데 책을 한 권도 북에서 가져오지 못했으니 작은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도 내놓지 않고 그 돈으로 책을 샀다. 나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돈 없이 한 달을 살아보자고 했다.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늘 울곤 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아내가 흘린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그 가난한 생활을 불평 없이 이끌어가 준 아내에게 나는 지금도 마음으로 사죄하고 있다.

5.16후에 화폐개혁이 있었다. 60만원 짜리 전세로 있었는데 그것이 6만원으로 변해 버렸다. 우리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갈 곳이 없는 우리는 지금의 수유동으로 그것도 오막살이를 얻어 이사를 했다. 그때는 교통이 말이 아니어서 드문드문 다니는 버스가 밤 10시면 미아삼거리에서 끊어지고 만다. 늦게 돌아가다 차가 없으면 걸어가든지 여인숙에서 자고 들어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자고 들어 온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어디서 잤느냐고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아내의 마음이 하도 착해 아내를 거짓말로 속일 수가 없었다. 일본 어느 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남자로 태어나고, 내 아내가 죽었다가 다시 여자로 태어난다면 아내는 몰라도 나는 다시 아내와 결혼할 것이다” 나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본다.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기에 살아 있을 때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지금도 아내의 묘지에 가면 잔디가 무성하고 봄산엔 소쩍새가 울고 있다.

아내가 내 곁을 떠난 지 벌써 11년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의 낮은 음성이 귀에 남아 있다.

교회 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 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중심 신앙' <b>갈 보 리 교 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2권 4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0년 10월 1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 <내가 교회가 싫은 이유>

**말 많은 전도사가 귀찮아 교회가 싫습니다.**

**Q) 교회 가서 전도사한테 한번 불들리면 어쩌나 집요한지 귀찮을 정도입니다. 너무 독선적이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할 말로 일방적 주장만 하기에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A)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말이 많은 전도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목사나 전도사님들은 말씀이라는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사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들을 말씀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물론 방법에서 다소 세련되지 못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속뜻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병원이나 병원냄새, 또는 의사, 간호사의 가운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나, 간호사들께서 아이에게 아픈 주사 바늘을 꽂을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주사 바늘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보다는 그 주사약이 내게 도움을 줄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 전도사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른 분, 열린 마음으로 대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닫힌 마음에 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 어느 날 문득 절대적 힘과 절대적 사랑을 가진 단 한 분의 존재가 그렇게 절실하게 소중하다는 필요 앞에 마주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그 때를 기다리자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입에 침을 튀기면서 우리를 위해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에 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실 따지고 보면 아쉬운 것은 전도사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아닐지요?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찬 송

Hymn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기 도

Prayer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설 교

Sermon

찬 송

Hymn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응 답 송

Response Song

\*위탁의 말씀

\*축 도

Benediction

"Calvary"

1.3절:다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28 장

4 (시 8편 )

사 도 신 경

91장

고린도전서 9:15-27

차라리죽을지언정....

204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좋은신 하나님"

< 10월 예배 위원>

다 같 이

인 도 자

다 같 이

다 같 이

정회자 집사

아 동 부

부부성가대

김화수 목사  
(주님의교회)  
다 같 이

인 도 자

다 같 이

인 도 자

김성국 목사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사항>

\*개인과 가정:매일 1/2성경읽기, 가정예배

\*교 회:화요새벽기도회

\*선 교:결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30 pm

수요예배 7:30pm(ST.Stephens)

화요새벽기도: 6:00

## 교 회 소 식

### 1.성경완독 1년계획

\*래위기 성경읽기 완독표에 따라 이번주에도 계속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완독하신 성도께서는 봉헌함에 완독표를 넣어주시요

### 2.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화수 목사님(주님의 교회)께 감사 드립니다.

### 3. 제직회(예고): 다음주일 예배 후 제직회 모입니다. 각 위원회는 준비하여 주십시오

### 4. 장년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3기)

\*일시: 10월 10일(화)-10월 31일(매주 화요일) 저녁 7:30

\*장소: 교회

\*대상: 등록번호 10번 이후부터

### 4. 정기 금요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매월 2째, 4째 금요일에 갖는 여성교우들의 기도모임

\*장소:Adria

\*일시 13일 7:30pm

@이번주는 약속의 아비기도회와 함께 갖습니다.

### 5. 약속의 아비 기도회

\*지난주에 모이지 못했던 "약속의 아비" 정기 기도모임을 금주에 갖습니다.

일시: 13일(금) 장소: Adria 시간: 7:30 pm

### 6. 10월의 식사친교

\*10월 둘째주일 정기식사친교는 연합예배(22일)시 식사로 대체합니다( 1달 1회)

### 6 .10월의 교회력

\*8일(주일) 제직회

\*10일(화)-31일(화)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

\*13일(금). 약속의 아비 모임

\*13, 27(금).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22일(주일) 3교회 연합예배와 체육대회

일 자	헌금위원	기 도	teatime봉사
1일	김영길.신경화	정 회 자	김효권.김영길
8일	최윤희.송정섭	지 윤 수	정재정.이상욱
15일	이경석.한은영	최 윤 호	김교섭.김시욱
22일	변지웅.신선숙	한 건	연 합 예 배
29일	김효권.이영주	한 은 영	이영권.지윤수